

#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과 당시 조선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 수업 목표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과 당시 조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 차시 구성

이 차시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과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도입	• 동기 유발하기 • 학습 문제 확인하기
전개	•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과 결과 살펴보기 • 주전론과 주화론 이해하기
정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차시 예고하기

## 교과 역량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 지도상의 유의점

병자호란은 조선과 청의 입장 차이로 청이 침략해 온 전쟁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1 동기 유발하기

- 이전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였나요?  
– 임진왜란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어떤 상황에 처하였을까요?  
–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회복해야 하였을 것입니다.  
– 백성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하였을 것입니다.
- 임진왜란 이후 명은 어떤 상황에 처하였을까요?  
– 임진왜란이 일어난 장소는 조선이기 때문에 명의 상황은 전쟁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오랜 기간 전쟁에 참여하며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 2 학습 문제 확인하기

병자호란이 어떻게 일어났고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봅시다.



### 1

##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과 당시 조선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 2

이 시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과 당시 조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 3

명은 임진왜란 이후 급격히 힘이 약해졌다. 그 무렵 여진은 부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우고 명을 위협하였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 세력은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다.

###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처한 상황

### 전개

#### 3 병자호란이 일어난 배경 이해하기

**지도 +** 교과서 72쪽의 본문과 자료를 통해 병자호란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전쟁인지 이해하도록 한다. 17세기 초 만주의 여진은 후금을 건국하였다. 세력을 키워 가던 후금은 명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에 명은 후금을 물리치기 위해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한 서인은 이에 반발하여 인조를 왕으로 세웠다.

-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동북아시아 정세는 어떠하였나요?(지도서 262쪽 자료 1, 2 참고)  
– 명은 세력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 여진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 광해군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 인조가 즉위한 후 조선의 대외 관계는 어떻게 변하였나요?  
– 조선은 명과의 의리를 내세우다가 후금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4

조선이 명을 가까이하자 명과 전쟁 중이던 후금은 1627년에 조선을 침략하였다(정묘호란). 관군과 의병이 후금군에 맞서자, 후금은 일단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고 물러났다.

이후 세력을 키운 후금은 1636년에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해 왔다. 조선이 청의 요구를 거절하자 청은 조선을 다시 침략하였다(병자호란). 청군이 빠른 속도로 한양에 이르자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병자호란의 현장,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가파르고 험한 곳에 있으며, 안쪽은 평평해서 전쟁 시 머무르면서 적의 공격을 막는 데 유리하였다. 각종 방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남한산성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남한산성 암문(경기도 광주시)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만든 비밀 성문으로, 남한산성 곳곳에 남아 있다.



수어장대(경기도 광주시)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군사를 지휘하던 곳이다.



수업 도움 자료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72~73쪽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처한 상황과 호란이 발발한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병자호란 당시 인조와 신하들이 피신한 남한산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용어 해설

암문 성벽에 누(樓) 없이 지은 비밀 문으로, 평소에는 막아 두었다가 위급할 때 비상구로 사용하였다.

학습 준비물(교수·학습 자료)

활동지(지도서 264쪽)

교과서 관련 질문 예시

- 광해군과 인조는 명, 후금과 어떤 관계를 맺었나요?
- 남한산성의 구조는 어떠한가요?

4 정묘·병자호란의 전개와 남한산성 피신 과정 살펴보기

**지도+** 교과서 73쪽의 본문과 자료를 통해 정묘·병자호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후금은 명을 공격하기 전 배후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을 침략하였다. 후금군은 압록강을 건너 황해도 지역까지 쳐들어왔다가 일단 조선과 화의를 맺고 돌아갔다. 이후 세력을 키운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당황한 조선 조정은 왕자들을 강화도로 피신시켰지만, 정작 임금인 인조는 길이 끊겨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 조선이 명을 가까이하자 후금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 명과 전쟁 중이던 후금은 조선을 공격하였습니다. 조선은 이에 맞서 싸웠으나 끝내 형제 관계를 맺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 정묘호란 후 후금과 조선의 관계는 어떠하였나요?  
- 세력을 더욱 키운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의 관계'를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바꾸자고 하였습니다. 조선은 청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청은 다시 조선에 침입하였습니다.

- 병자호란이 일어난 후 조선의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 청군이 빠른 속도로 한양에 이르렀고,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습니다.
- 남한산성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가파르고 험한 곳에 있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 외부와의 연락이 쉽지 않아 포위되면 식량 등을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까닭은 무엇인가요?(지도서 263쪽 자료 4 참고)  
- 각종 방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 남한산성에 있는 시설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을 이야기 해 봅시다.  
-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게 만든 암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 적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수어장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수업 도움 자료

###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74쪽에서는 조선이 남한산성에서 40여 일 간 항전하였으나 결국 청에 항복하였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후 김상헌과 최명길의 주전론과 주화론을 깊게 이해하고 그중 어떤 것을 지지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이는 특정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 활동 및 자료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그림 해설

교과서 74쪽의 그림은 1637년 1월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삼전도로 나아가 청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 사건을 표현한 것이다.

### 교과서 관련 질문 예시

- 김상헌 등이 청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최명길 등이 청과 화해하자고 주장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삼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에 있던 한강의 나루예요.

6

다 함께 활동

만약 내가 인조였다면, 다음 주장 중 어떤 것을 선택하였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김상헌**  
명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나라이고 청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 『인조실록』

**최명길**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 관계를 굳게 지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너그럽고 착한 정치를 베풀어 백성의 마음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양식을 저축하여 군사력을 기르면서 저들의 허점을 노려야 합니다.  
- 『자천집』

**7**  
장가! 확인해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 O | X )

강화도로 간 왕자들마저 포로가 되었다니 버틸 수 없구나.

정답 : 160 쪽

**8**

74

## 5 남한산성의 항전과 호란의 결과 살펴보기

**지도 + 사회 + 생각**을 통해 병자호란 이후 세워진 삼전도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안의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 청과 끝까지 싸우자는 신하들과 싸움을 멈추고 청과 화해하자는 신하들이 대립하였습니다.
- 상황이 불리해지자 인조는 청에 항복하였습니다. 청과 조선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었고, 조선의 왕자들과 대신, 백성이 청에 끌려갔습니다.

## 6 스스로 활동 주전론과 주화론 이해하기

**활동 안내** 병자호란 당시의 두 주장을 이해한 후, 자신이 지지할 입장을 정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 본다.

**활동 방법** 김상헌과 최명길의 주장을 살펴보고, 자신이 지지할 입장과 그렇게 정한 까닭을 말해 보도록 한다.

- 만약 내가 인조였다면, 다음 주장 중 어떤 것을 선택하였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 정리

### 7 학습 내용 정리하기

- 병자호란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말해 봅시다.  
-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청에 맞섰습니다.  
-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한동안 해마다 많은 물자를 청에 보냈습니다.
- **장가! 확인해요**를 풀어 봅시다. **답** ○

### 8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역사를 기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평가하기

평가 관점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과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나요?	상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과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과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말할 수 있다.
		하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과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감출 수 없는 역사, 삼전도비의 굴욕



75

### 수업 도움 자료

####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75쪽은 주제와 관련한 읽기 자료로 구성하였다. 삼전도비에 얽힌 역사를 살펴보고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 용어 해설

수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이른다.

제  
2  
부  
1단원

교과서  
72  
~  
75  
쪽

### 사회 생각

#### 수업 방법 및 활동

병자호란 이후 삼전도비가 세워지고 여러 차례 훼손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후 치욕스러운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자료 더하기

##### 삼전도비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직후 청의 요구로 삼전도에 세운 비석으로, 앞뒷면에 몽골, 만주, 한자 3개 문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의 정식 명칭은 대청황제공덕비(大清皇帝功德碑)이다. 삼전도비에는 청 태종이 대군을 거느리고 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던 인조가 삼전도에 마련된 수항단에서 항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한국 문화유산 답사회, 『답사 여행의 길잡이 15: 서울』

##### 병자호란 항복의 기록, 삼전도비의 훼손

병자호란 때 조선의 항복을 기록한 삼전도비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07년 2월 6일 확인한 삼전도비 앞면에는 ‘철’이라는 글자가, 뒷면에는 ‘거’라는 글자가 휘갈겨 쓰여 있었다. 또한 비석 앞면 아래쪽에는 ‘370’이라는 숫자가, 뒷면 아래쪽에는 ‘병자’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 체육과에서는 “비석에 새겨진 숫자 370은 병자호란이 일어난 1637년과 2007년 사이의 햇수를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였다.

2007년 2월 5일 오전 9시 30분 즈음 삼전도비 일대를 청소하러 왔다가 훼손 사실을 발견한 송파구 문화 체육과 직원은 “3일 밤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마을 주민들의 말에 비추어 볼 때 4일~5일 아침 사이 범행을 저지른 듯하다.”라고 설명하였다.

- 『한겨레』, 2007. 2. 7.



# 교수·학습 참고 자료

## 자료 1 후금의 꺾기

교과서 72쪽

만주족은 만주 지방에 터를 잡고 살아왔던 사람들로, 숙신, 말갈, 여진 등으로 칭해졌으며, 명대에는 만주족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12세기 초에 금을 건국하여 송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중국의 북쪽을 차지하였다. 금이 멸망한 이후에는 쑹화강 유역의 해서 여진, 백두산 일대의 건주 여진, 연해주 일대의 야인 여진, 대략 3개의 큰 부족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건주 여진에서 누르하치가 등장하여 만주족을 재통일하였다. 그는 건주 여진의 부족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는 명에 충성을 바치며 세력을 유지하였던 부족장으로, 명에 반대하는 아타이 세력이 명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을 설득하여 명에 항복하게 할 목적으로 아타이의 성에 들어갔다가 억류되었다.

누르하치의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가 나오지 못하자 아타이의 성에 들어갔다가 억류되었다. 결국 모두 명이 아타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이 누르하치의 가슴 속에 깊은 원한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세력을 키워 스스로 명과 대적할 정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철저히 명에 복종하였다.

임진왜란은 누르하치에게는 하늘이 도운 기회였다. 그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부족을 통합하고 내부 체제를 정비하여 1616년, 마침내 ‘후금’을 건국하고 홍경에서 칸위에 올랐다. ‘후금’이라는 이름은 그의 조상들이 세웠던 금을 계승한다는 뜻이다.

후금은 본격적으로 명과의 대결에 들어갔다. 후금의 군대 조직은 팔기군이였다. 이는 유목 민족 특유의 군사조직으로 사회 조직과 일치되어 커다란 힘을 발휘하였다. 유목민들은 빈번하게 이동하는 특성에 따라 일찍부터 군사 기능과 징세, 행정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특유의 사회·군사 조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대로 부대로 편성되어 세력 확대에 큰 힘을 발휘하였다.

- 안정애,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중국사의 흐름을 가장 쉽고 단순하게 중국사 읽기의 베스트 입문서』

## 자료 2 광해군의 중립 외교

교과서 72쪽

국왕이 도원수 강홍립에게 지시하였다. “원정군 가운데 1만 명은 조선의 정예병만을 선발하여 훈련하였다. 이제 장수와 병사들이 서로 숙달하게 되었노라. 그러나 그대는 명군 장수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만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오직 패하지 않는 전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 『광해군일기』

1618년에 명은 후금을 치기 위해 대군을 일으키면서 조선에 군사를 보내라고 요청하였다. 광해군이 시간을 끌며 군사를 보내지 않자, 명은 후금을 치기 전에 먼저 조선을 치겠다며 광해군을 압박하였다. 결국 광해군은 강홍립이 이끄는 군사를 명으로 파견하였다.

하지만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강구하는 데 힘쓰라.”, “상황을 보아 후금에 항복하고, 우리는 명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파병하였고 후금과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전쟁에 휘말리기보다는 두 나라와 적당한 관계를 두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 자료 3 양반층 전반이 승명의리에 매달린 까닭

교과서 72쪽

양반층 전반이 승명의리에 매달린 것은 그들이 봉착해 있는 사회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이 더 피부에 와 닿는다. 실상은 자기 잇속만 밝히는 대국이지만 하늘의 이치에 따라 섬기고 받들어야 한다는 논리의 이면에는, 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 백성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양반들이지만 상민들도 양반을 하늘의 이치에 따라 무조건 섬기고 받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전란의 영향으로 사회 기강이 해이해지자 양반들에게는 반상의 신분 질서를 재정립하여 강화하는 것이 그들 중심의 사회를 온존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관건으로 다가왔고, 그 결과 승명의리가 양반층 공통의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 강만길 외, 『우리 역사를 의심한다』

남한산성은 조선 시대의 산성으로, 672년 통일 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옛터를 활용하여 1626년에 대대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남한산성은 평균 고도 해발 480m 이상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한 곳이다. 또한 둘레가 12km에 이르며 산 위에 도시가 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분지에 있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임금과 조정이 대피할 수 있는 조선 왕실의 보장처(保障處)였다. 남한산성은 성곽을 쌓은 축성술 면에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계속된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의 한국(조선), 일본(아즈치·모모야마), 중국(명·청) 사이에 광범위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 기간 동안 유럽의 영향을 받은 화포의 도입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무기 체계의 발달은 남한산성의 성곽 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기준 중 기준 II와 기준 IV에 부합하는 문화유산이다. 남한산성의 성곽을 유심히 살펴보면 돌의 종류나 성곽을 쌓은 모습이 제각기 다르다. 남한산성이 어느 한 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기록상 통일 신라 시대에 쌓았던 주장성을 기초로 하여 조금씩 증축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등의 국제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무기 발달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탁월한 증거이자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성곽 축성 기술의 모습들을 발달 단계별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남한산성은 다른 산성들과는 달리 산성 내에 마을과 종묘·사직을 갖추었다. 전쟁이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금이 머무를 수 있는 행궁과 종묘에 있는 선조의 신주(神主)를 옮길 수 있는 좌전을 마련하여 조선의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하였다.

남한산성은 자연지세, 건축 구조,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모두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진정성을 충족하기 위한 속성인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기술 관리 체계, 입지와 주변 환경, 비물질적 전통, 정신과 감성 등의 측면에서 남한산성에는 다양한 기록 유산과 연구물이 존재하고 있다.

- 국가 문화유산 포털 누리집, 「남한산성」




## 수업 효과

모둠별로 ‘끝까지 싸울 것인가, 멈출 것인가.’ 역할극을 꾸며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전론과 주화론의 입장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다.

## 수업 방법

- ① 모둠 내에서 주전론과 주화론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할 것인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 ② 각 입장을 잘 보여 주는 기록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한다.
- ③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원들과 서로 의논하며 역할극 대본을 작성하도록 한다.
- ④ 순서를 정해 차례대로 학급 구성원들 앞에서 ‘끝까지 싸울 것인가, 멈출 것인가.’ 역할극을 선보이도록 한다.
- ⑤ 역할극을 마친 후 주전론과 주화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말해 보도록 한다.

## 추천 도서 및 영상, 관련 누리집

-  한명기, 『병자호란』 1-2, 푸른 역사, 2013.
-  문화유산 채널, 「문화유산 여행길 41: 상처를 통해 돌아보다 병자호란과 남한산성」
-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 유산 센터 <https://www.gg.go.kr/namhansansung-2/>

①-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주전론과 주화론 이해하기

반

번

이름:

1 김상헌과 최명길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봅시다.



김상헌

명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나라이고 청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 『인조실록』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 관계를 굳게 지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너그럽고 착한 정치를 베풀어 백성의 마음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양식을 저축하여 군사력을 기르면서 저들의 허점을 노려야 합니다.

- 『지천집』



최명길

인물	김상헌	최명길
주장		
근거		

2 만약 내가 인조였다면 위 주장 중 어떤 것을 선택하였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① -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주전론과 주화론 이해하기

반

번

이름:

1 김상헌과 최명길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봅시다.



김상헌

명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나라이고 청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 『인조실록』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 관계를 굳게 지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너그럽고 착한 정치를 베풀어 백성의 마음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양식을 저축하여 군사력을 기르면서 그들의 허점을 노려야 합니다.

- 『지천집』



최명길

인물	김상헌	최명길
주장	청과 싸워야 합니다.	청과 화해해야 합니다.
근거	명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나라이고 청은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화를 늦추고 힘을 기르면서 그들의 허점을 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내가 인조였다면 위 주장 중 어떤 것을 선택하였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최명길의 주장을 선택하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백성이 많은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